

2001년 7월호

새롭게 시작됩니다



2001. 7

목 차 Contents

- 금강산, 이제 저렴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 5
미국보다 멀던 금강산 길, 30분이면 갑니다
관광일정이 자유로워지고 해수욕, 스키 등도 가능해집니다
설악산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국민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참여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 금강산 관광사업이 흑자로 전환됩니다. / 9
북한측은 수익성 보장을 위한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관광 대가가 줄어, 우리측 부담이 줄었습니다
관광객 수가 늘고, 부대 수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육로관광이 본격화되는 2003년 부터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합니다

- 금강산 관광사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 13
금강산, 누구나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평화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입니다

- 금강산 관광사업, 좀 더 알아보시다! (Q&A) / 17
 1. 1인당 관광 대가(50~100달러)가 여전히 비싼 것 아닌가요?
 2. 북한측이 육로관광 등의 합의를 제대로 지킬까요?
 3. 금강산 관광 대가가 군사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4. 금강산 관광사업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닌가요?

금강산, 이제 저렴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미국보다 멀던 금강산 길, 30분이면 갑니다

관광일정이 자유로워지고 해수욕, 스키 등도 가능해집니다

설악산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국민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참여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북로의 열린 금강산 길 30(을)번 합의의

2001년 6월 8일, 현대와 북한 아·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난관에 부딪힌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육로관광 실시 ②관광특구 지정 ③관광객 수에 따른 대가 지급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 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면서 현대가 북한측에 제기하였던 문제점을 북한측이 받아들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금강산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육로교통을 이용한 금강산관광에 합의한 것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간 연결 도로는 북한측 고성군 금강산 입구와 우리측 고성군 송현리간 13.7km이며, 남북 모두 비무장지대 직전까지 도로가 개선되어 있으므로 7km만 연결하면 차량통행이 가능함.

버스를 타고 육로로 이동할 경우 금강산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는 30분, 설악산 입구에서 출발해도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처럼 동해항과 금강산 장전항 간의 뱃길을 이용할 경우에도 편도 15시간, 왕복 30시간씩 걸리던 불편함도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광일정이 자유로워지고 해수욕, 스키 등 휴
가능해질 것이라**

육로관광이 시작되면 현재의 해로관광에 비해 교통수단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왕래가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즉, 그 동안 유람선 운행 일정에 따라 관광일정이 3박4일(또는 2박3일)로 한정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하루든 이틀이든 관광객이 일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대와 북한측이 금강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수욕장,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 등 다양한 편의·위락시설 설치가 가능해졌고,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이용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금강산 관광시 등산, 온천욕, 교예단 관람 이외에는 이렇다할 관광 프로그램이 없었고, 관광지역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설악산처럼 눈썰매 길 등 있는 국민관광지가
될 것이라**

육로를 통한 관광이 실시되면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악권과의 연계관광이 가능해져, 국내외 관광객들은 설악산이나 동해안을 관광하면서 동시에 금강산도 관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그 동안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쉽게 가지 못했던 상당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안하게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학생들의 체험연수, 각종 친목모임 및 가족단위의 관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의 체험 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현장 학습의 효과도 있음.

한국관광공사의 참여를 사업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임 기대

이번 합의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면서 한국관광공사가 현대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금강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현대가 쌓아 놓은 경험에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정보와 사업 노하우(Know-how)가 더해져 금강산 관광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관광공사의 국내외 지사망을 통한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높으며, 관광프로그램도 국민 편의에 맞추어 개발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흑자로 전환됩니다

북한측은 수익성 보장을 위한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관광 대가가 줄어, 우리측 부담이 줄었습니다

관광객 수가 늘고, 부대 수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육로관광이 본격화되는 2003년 부터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합니다

북한측은 수익성 보장을 위한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했습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 때문에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서, 한국관광공사마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해오면서 투자에 비해 수익이 적고 현대그룹 자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 사업초기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 관광의 불편함으로 인해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 현대가 북한측에 지불하기로 한 관광 대가가 과도했고, ▲ 현대 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대는 지난 6개월간 북한측과의 꾸준한 협상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번에 북한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관광 대가가 줄어 우리측 부담이 줄었습니

현대와 북한측이 과거 관광객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1,200만 달러)의 관광 대가를 지급하던 방식을 조정하여, 2001년 6월부터 월별 관광객 숫자에 따라 관광 대금을 차등 지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측 사업자가 갖는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종의 입국비자 수수료와 공원 입장료에 해당하는 육로관광 대가로 50달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4만명이 육로로 관광할 경우, 관광 대가로 2백만 달러만을 지급하게 되어, 기존보다 매달 1,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지불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됨으로써 북한측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북한측이 시장경제원리를 배우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늘고, 부대 수입도 증가할 것임 기대

육로관광이 실현되고 금강산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금강산관광 자체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설악산·동해안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 중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연계하여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소수의 고가' 관광에서 '다수의 저가' 관광, 즉 '박리다매형 국민관광'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가 됨으로써 해수욕장, 골프장, 스키장, 위락시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부대 수입도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관광객 수의 증가와 부대 수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다시 관광여건 개선에 재투자되어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이룰 것입니다.

육로관광이 실현되면 2003년 부터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임이다

현대와 관광공사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될 경우, 속초·설악권을 찾는 관광객 연간 910만명(2000년 강원도청 발표)의 약 5~11%에 해당하는 50만~100만명 정도가 금강산 관광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은 육로관광이 본격화되는 2003년부터는 차입금 이자와 북한측 관광 대가를 지급하고도 이익(66억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고도 잉여자금(52억원)이 발생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2009년까지는 1,449억원의 누적 순이익 및 988억원의 잉여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금강산 관광사업은 사실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 사업으로서 다른 관광사업과 마찬가지로 초기 몇 년간은 재정적 어려움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이는 사업 초기에 관광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를 통해 나타나는 적자는 30년간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평가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강산, 누구나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평화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입니다

금강산, 누구의 사고 싶었던 곳일까요

‘천하 제일의 명산’으로 칭송받아 온 금강산은 우리 민족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금강산관광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82년 2월,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민족화합을 위한 20개 시범사업의 하나로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을 제의한 바 있음.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정부」들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에 힘입어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 6월말 현재 약 42만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평화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8년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 또 다시 위기감이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하면서 남북간 긴장고조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이 크게 변화였습니다.

1999년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때도 동해로는 관광선이 오고 감으로써 전쟁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받아들이면서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을 개방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전환시켰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국도는 서부 전선의 경의선 철도·도로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열고 휴전선을 통과하는 평화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즉 동·서 양쪽에서 개통되는 철도·도로는 남북을 잇는 단순한 교통로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998년 IMF 위기시 외국의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설로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하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하여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외국인자본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육로교통과 관광특구 지정 등에 힘입어 금강산이 세계적 관광지로 본격 개발되면,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상호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설악권·금강산 연계관광이 활성화된다면, 고성·속초·양양 등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관광사업은 정보통신(IT)사업과 함께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세계 각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과 북이 관광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은 민족경제 번영을 위한 실사구시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닙니다. 민족의 평화, 민족의 통일로 나아가는 기념비적 사업입니다.

또한 남북이 함께 상호협력과 화합의 모범적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민족적 사업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육로관광까지도 동의해 온 것은 남북분단사를 새롭게 쓰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당수 우리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다소 문제는 있더라도, 이를 보완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성인남녀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5%가 '정부지원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금강산 관광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2001년 6월, 「리서치&리서치」)

만일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민족적 자존심에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침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남북간 긴장완화, 경제협력, 그리고 민족화해와 신뢰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좀 더 알아보시다!

1. 1인당 관광 대가(50~100달러)가 여전히 비싼 것 아닌가요?
2. 북한측이 육로관광 등의 합의를 제대로 지킬까요?
3. 금강산 관광 대가가 군사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4. 금강산 관광사업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닌가요?

1

1인당 관광 대가(50~100달러)가 여전히 비싼 것 아닌가요?

일종의 입국비자 수수료와 공원 입장료라고 볼 수 있는 관광 대가는 설악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국립공원 입장료와 비교하면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특수지역임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 여행시 입국비자 수수료를 1인당 110~200달러, 중국 여행시 입국비자 수수료를 50~100달러씩 지불하고 있음.

북한이 그 동안 금강산 일대를 군사적 요충지역으로, 또 금강산을 '민족 최대의 명산'으로 중시해왔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군부의 반발 또는 주민의 불만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북한 내부에서는 '금강산을 현대에게 팔아 넘긴 것 아니냐?', '북조선 사람들은 못가고 남조선 사람만 간다니 말이 되느냐?' 하는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 이후 북한 주민은 물론 고위층 및 공로 인사들에게 베푸던 금강산 특별여행도 중지시켰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대가 지불은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위락시설이 개발되어 수입이 확보되면 관광 대가는 그 때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다시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북한측이 육로관광 등의 합의를 제대로 지킬까요?

북한이 육로관광 등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금강산 관광의 중단과 이로 인한 수익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됩니다.

북한측은 현대의 '관광 대가 조정' 요구에 대해 초기에는 '합의사항 위반' 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관광사업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자 차츰 현대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북한측은 현대가 지난 3월부터 몇 개월간 관광대금 지불을 미루는 데 대해서도 즉각 '관광중단' 을 택하기보다는 관광을 지속하면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빈소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사업지속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협상과정에서 양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관광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양측 사업자간에 조성된 상호신뢰와 이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측의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갖고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북한측이 육로관광 등의 합의를 저버리거나 이행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금강산 관광 대가가 군사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금강산 사업을 통해서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군비증강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사업기간인 1999~2000년 2년 동안 대외무역에서 11억 4천만 달러의 '수입 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금강산 대금(3억 5천만 달러)의 3배가 넘는 달러를 외국으로부터 '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입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무기구입'과 같은 것은 이러한 통계에 반영하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이 외부에서 생필품이나 일반 경제용품 구입을 위해 금강산 대금의 대부분을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관광 대가 지불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국내경제 회복 등에 기여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경우, 결국은 남북경협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에 하나라도 관광 대가가 북한의 군사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와 북한측의 합의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문제는 육로가 개설되어 관광이 활성화 될 때까지(1~2년 소요 예상) 현대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대는 한국관광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능력있는 다른 민간기업의 참여와 금융권 용자 등을 희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간기업들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은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참여를 망설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광공사가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된 만큼 다른 민간기업에 앞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관광공사의 참여는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개월 내에 다른 민간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공사는 이미 2000년 8월 29일 현대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업무제휴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컨소시엄 참여는 이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한 것임.

이제 관광 개발·홍보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로 개설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설악권과 연계하는 국민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참여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5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닌가요?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써, 정부는 그 동안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채택하여,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경제교류협력 문제를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간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경협의 초기에는 난관이 많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도 좌절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추진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협력기금법' 에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한 것도 이러한 취지입니다.

‘정경분리’ 원칙이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정부는 손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조치가 육로관광을 위한 7번국도 연결,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위협 해소라는 측면에서 국가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경분리’에 입각한 민간기업의 역할을 정부가 맡은 것은 아닙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자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구조 변경을 위해 노력했고, 북한측으로부터 그러한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한 자금도 사업활성화와 함께 정부에 환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은 일종의 종자돈(seed money)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